

		<b>보도자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3일(금) 총 3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440-1581 • 담당자 최수연 ☎440-158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도시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24시간 365일! 정신응급병상 운영**  
 - 인천참사랑병원 · 글로리병원 · 삼정병원, 4개 정신응급병상 확보 -  
 - 24시간 상담부터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 통해 치료·보호까지 신속 위기대응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시민이 정신의료기관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병원을 순회하거나 방황하는 일 없이 즉각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야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신응급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정신응급병상’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3.5.)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축소되면서 정신응급병상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응급정신병상 6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의 요구에 따라 올해 인천참사랑병원, 글로리병원, 삼정병원 3개의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을 선정해 4개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했다.

‘24시간 정신응급병상’의 진행절차는 112경찰, 119소방,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에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상태 위기 평가를 통해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으로 의뢰하게 되고,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된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제공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3개의 병원은 9월 2일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4시간 365일 응급병상을 운영하며, 이로써 주·야간 24시간 상담부터 응급출동 및 위기개입을 통해 정신응급환자의 치료·보호까지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에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적극적 동참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24시간 상시 이용 가능한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해 정신응급환자의 적시 치료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5시 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